

“뿌린대로 거두는 農心배워요”



▷새벽예배.



▷새벽참선.



▷실상사 농장 귀농인들과의 대화.



▷올겨울 새참시간.

9일 봄 햇볕이 따사로운 지리산 실상사농장.

찰랑찰랑 물 잔긴 논배미에서 남녀노소가 어울어진 한 무리의 도시인들이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한 줄의 모를 심고 한번씩 푸른 하늘을 쳐다보며 허리를 쭉는다. 똑같이 반복되는 작업이지만 지루하지 않다. 산자락과 맞닿은 하늘을 응시하면 자연과 호흡하는 미래가 보인다. 허리와 다리에 적지 않은 고동이 느껴진다. 한 뭉치 쌀과 먹거리의 소중함이 뼈에 사무친다.

이들은 저마다 하나씩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찌든 도시생활을 청산하고 자연으로 돌아가 농부살이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른바 귀농희망자들이다. 8명의 여성 농군후보를 비롯 24명의 교육생은 소프트웨어 회사 사장, 예운회사 임원, 기자, 동대문시장 상인, 공무원, 은행 지점장, 커피숍 주인, 대학생 등 이력도 다르고 60~24세의 연령차도 컸지만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길 수 있는 불교적 삶의 가치를 깨닫는 기쁨은 다를 수 없었다.

지난 8~11일 지리산 실상사(주지 도법)에서 실시된 불교귀농학교 현장교육은 '선농일여(禪農一如)'의 불교적 귀농교육의 첫 현장

실상사 불교귀농학교 남녀노소 24명 동참 생명살리는 농사통해 경쟁심 잡초뽑듯 없애고 이웃과 협동심 나누며 신토불이·선농일여 체험

이었다. 3박4일간 진행된 현장교육은 새벽 예불과 참선으로부터 시작해 오전 오후 노작, 저녁 예불과 토론 등으로 진행되어 대부분 불교인문자인 참석자들이 불교도 배우고 농사도 배우는 계기가 되도록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됐다.

첫날은 입재식과 불교귀농학교 교장 도법스님의 법문, 불교예절, 참선 등 불교에 대한 기초지식을 학습했지만 9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노작이 실시됐다. 과정은 실상사 화엄하림 스님들과 함께 하는 모내기 및 더덕밭 김매기, 대부분 처음 해 보는 농사일이 서툴지만 모두를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했다. 스님들과 함께한 울렁이어서인지 뿌린대로 거두는 것을 믿는 '농심(農心)'이 인과(因果)를 믿고 선을 행하는 '불심(佛心)'과 다르지 않음을 실감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배움으로써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님(身土不二)'을 체험하기도 했다.

10일 노작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더덕 밭매기, 곤달비 수확 및 잡초 제거 등을 실습했다. 잡초와 씨워 이기는 농작물의 모습이 도시에서의 생존경쟁을 떠올렸다. 이제는 경쟁의 마음을 잡초처럼 뽑아 버리고 이웃과 협동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 여기저기서 들

린다. "만물을 살리는 땅의 자비심을 배워 욕심없이 살아야지...". "그러기 위해선 땅을 살리는 유기농법을 해야 해."

11일은 건축비가 적게 들고 난방·통풍이 잘 되어 건강에 좋은 45평 규모의 '흙집'(실상사부설 합장연구원) 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9·10일 저녁 7시30분에 각각 진행된 '실상사 농장 운영자들과의 만남'과 '귀농 및 인생 계획 발표회'는 귀농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총철우 실상사농장 대표 등 4명의 선배 귀농인들은 불교적인 삶, 환경친화적 농업이란 이상과 농촌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농촌에 잘 적응하는 노하우는 없을까요?" "아이들 교육은 문제가 없나요?" "유기농법은 몇년만에 시행이 가능한가요?" "공동체는 왜 필요한가요?"

"풍요를 통해 농업기술을 배우고 주민들과 친해질 수 있어요." "학교마다 학생수도 적고 자연속에서 도시에 뒤지지 않는 열린교육을 받을 수 있어 예뻐요 좋아해요." "유기농법을 위해서는 땅을 살리는 퇴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년이 걸립니다." "공동체업을 통해 농산물 가공, 소비자와의 직거래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펼칠 수 있어요."

선배들은 교육생들의 세부적인 질문에 정성스레 답하면서 농부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욕심없이 산다면 성공적인 귀농이 가능하다는 경험담을 들려 주었다.

10일 저녁 귀농계획 발표회는 저마다 이번 교육이 현장교육 후 허망한 계획을 좀더 현실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자랑하면서 나름의 장단기 귀농계획을 털어 놓았다. 대부분 자급자족에 만족하면서 자연 유기농법을 실시하고, 수행자의 정신적인 여유로움을 느끼면서 이웃과 함께 하는 농촌생활을 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교육생들에게는 며칠간의 산사 생활을 통해 생명을 존중하고 청빈한 생활을 강조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귀농운동의 가장 적절한 이론이 될 수 있음을 체험한 것도 중요한 수확이었다.

그러나 교육생들은 지속적인 불교귀농운동의 확산을 위해 귀농학교에 다양한 의견을 건의하기도 했다. △공동체를 형성 할 수 있도록 모임 또는 단체구성 △가나안 농군학교, 귀농운동본부 등과 프로그램 공유 △교육 기자재로서 필요(일지작성, 작목별 설명, 귀농 성공사례 수록 등) △재배기술, 불교경의, 흙집짓기 등 프로그램 전문화 △월1회 정도의 농업현장 방문 등등.

불교귀농학교는 7~9월 장기 현장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마련하고 있다. 22일 오후 2시 즈음에 불교회관에서 '귀농운동과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6월 5~8일 제2차 단기 현장교육 △6월 13~14일 현장탐방 △6월20일 제2기 귀농학교 개강식 △9월(또는 11월) '농촌문제를 보는 불교적 관점'(가제) 주제의 심포지엄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임야 6만, 논지 3만평의 실상사농장에 귀농학교 수료생 중 일부를 참여토록 하고 수도권 사찰을 중심으로 생태농장을 개설, 도시인들이 대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글·사진:김재경 기자



▷농사일의 기본은 모내기. 처음하는 일이라 허리는 아프지만 대자연속의 중간감이 느껴진다(사진 위) 더덕밭에서 잡초를 제거하며 마음의 번뇌도 속아낸다



“생태농사 짓는 불자공동체 건설”

실상사 불교귀농학교장 도법스님

"실상사를 불교 귀농인들을 위한 교육공간이자, 실질적인 생태농사를 짓는 공동체장으로 가꿀 생각입니다. 귀농인 불자들을 중심으로 농촌 지역공동체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불교귀농학교 교장 도법스님(실상사 주지)은 "농촌 사찰이 지역 농업경제와 문화, 신앙의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를 이루는 데 불교귀농학교가 밑거름이 되도록 발전하겠다"고 말했다.

도법스님은 귀농 및 농촌문제 대학의 일환으로 "조계종 사찰 유희토지 및 활용가능한 토지의 조사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유희토지 활용방안에 대한 각 사찰별 조사작업 내지 의견 취합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결국 종단 차원의 적극적인 귀농운동 지원은 지방자치시대의 포교전략으로도 긴요하다는 것이 스님의 생각이다.

“농사지으며 생활불교 배우터”

귀농결심한 연석훈·황수옥부부

"시골로 돌아가 한가로운 전원에서 생활불교를 구현하며 여생을 보낼까 합니다."

1기 불교귀농학교 현장교육생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연석훈(60·서울 송파구 중남2동·건축설계 감리사) 황수옥(57)씨 부부. 올해에 2남2녀를 둔 연석 부부는 모두 농촌에서 태어나 30년이 넘게 살아온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내년에 충남 아산에 정착할 계획이다.

연석 부부는 토담집(황토방)을 짓고 무공해식품을 생산하며 욕심없이 살기 위해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회리에 밭과 과수원 그리고 전답 9천평을 오래전에 마련해 두었다. 논 3천평도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성공한 귀농’ 이렇게 사전준비·영농실습 등 거처야

‘실직대중’이 몰아치는 도시를 떠나 농촌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정리해고가 진정되기는 커녕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자 아예 재취업을 포기하고 귀농하려는 도시인이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설부른 귀농은 더욱 참담한 결과를 가져온다. 귀농에도 일반 취업이나 창업 이상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사전준비 철저한 사전조사와 수요예측이 필수적. 사업종목(재배작목) 사업규모(경지규모) 투자비용(시설비 주택구입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 전국 평균 농지가격은 밭의 경우 평당 1만9천원, 논가 주택은 평당 2백여만원이다. 비닐하우스 시설비용은 한평에 평균 9만4천원. 유리 온실의 경우 한평에 40여만원이다. 영농 기본장비인 트랙터와 중형 경운기는 각각 7백만~1천만원, 1백80만원.

실습영농 농협중앙회 등 귀농을 돕는 단체가 마련한 영농 실습과정에 참여한다. 농부들이 추천한 작물을 골라 휴경지 등 땅을 빌려 1년 정도 농사를 지어본다. 주택이나 농지는 동네사람과 친해진 다음 1, 2년 뒤 매입하는 것이 좋다. 1천만원 정도는 생활비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영농지원 영농 희망자는 농협이 갖춘 전산망 '하나로복합망'을 이용해 전국 각지의 주택 농지 농기계와 매물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부가 4월부터 지원하는 농촌정착자금도 농치면 손에다. 주소지를 농가로 옮기고 농기구입 등 영농기반을 갖춘 사실

을 농촌지도소에서 확인받은 50세 미만 영농 창업 희망자는 1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문의는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02-397-5626, 5608).

귀농정보 △불교귀농학교(02-723-1884) △농협중앙회(02-397-6459, 0333-53-2531-5) △휴실림연구소(0445-33-8179) △한국자연농업협회(0445-32-8777)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02-3401-6543) △시군 농촌지도소(대부분 지역번호 +5959).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사선이 가는 법게스터를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자수로 보는 '부처님 생애'

남상민씨 자수전
국립민속박물관서
6월1일까지

섬세한 여인의 손에 의해 한 땀한땀 바늘과 실이 수천수만번을 움직이면 화려하고도 조화가 아름다운 하나의 예술작품이 탄생한다. 이러한 자수예술로 표현된 부처님일대기를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불자수가 남상민씨(64·한국자수문화협회 명예회장)가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6월 1일까지 여는 '자수예술로 읽은 부처의 생애'.

남씨가 수년간 정성들여 제작한 작품 65점이 전시되는 이번 전시회는 전생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부처님 생의 전 과정을 모두 91개의 주제로 세분하여 생생한 그림으로 엮었다. 특히 지난 7년부터 5년에 걸쳐 완성한 도솔래의상 비담강상생 쌍림열반상 등 팔상도는 이번 작품전의 백미. 이외에도 관세음보살도 등 불 보살도와 성철스님의 영정 자수 등도 함께 볼 수 있다.

이경숙 기자

따뜻한 햇살! 밝은 웃음! 튼튼입축제!

에버랜드에서 아미타전을???

모험과 즐거움이 있는
「에버랜드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측자 IMF 할인가격으로
아미타전 도 보시고
에버랜드 도 즐기고
어려운 때를 이겨내는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로 전화신청만 하시면
정자에 따른 불언어이 우대가격으로 입
장하실 수 있습니다.

시점	시점	일반관	일반단체	어린이	유소년	어린이
아미타1	아미타2	13,000	11,000	8,500	6,500	4,000
아미타3	아미타4	15,000	13,000	10,000	7,000	6,000
아미타5	아미타6	17,000	15,000	11,500	8,500	7,000
아미타7	아미타8	22,000	20,000	16,000	13,000	10,000
아미타9	아미타10	22,000	20,000	16,000	14,000	11,000

공 통 주 관 : 현대불교신문사, 삼성에버랜드, 호암미술관
문의·접수처 : 현대불교신문사전화 : 02-732-1522, 737-8881 팩스 : 737-0697, 737-0696